

본당 소식

2024년 6월 생활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 주일학교 2023-24 졸업식 및 종업식

- 일시: 6월 9일
- 장소: 밀라노 한인성당

♣ 구역 모임 및 회의

- 사목회의 : 6월 9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성서 모임: 6월 30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 계단,화장실: 정상현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22,02€ • 교무금 900,00€

전례 성가

입당 : 4 (찬양하라 2절)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172 (그리스도의 영혼),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파견 : 208 (간절한 주의 사랑)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일)	다음 주일(16일)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1독서: 김재의 미카엘
2독서: 우윤정 마리아	2독서: 김윤경 모니카
복 사: 이가은 마리아 판체아, 김사빈 엠마	복 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6월 9일 (녹) 연중 제10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1독서 (창세기 3,9-15)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9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0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12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13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14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15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4,13—5,1)

형제 여러분, 13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14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17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18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5,1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3,20-3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0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21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2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25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34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희망이신 주님,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2.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지혜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살피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피조물인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이산가족과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자비로우신 주님, 전쟁과 분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과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이들의 아픔이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는 십자가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성령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 병을 고쳐 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이 지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